호우로 유실된 불상, 기적적 회수

日 카마세마을, 강 범람에 법당채 유실

아미타삼존불 3구 유실
이 중 2구 해안서 발견
손상 없이 온전한 상태
남은 1구도 행방 탐색
마을, "법당 재건" 발원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달 호우에 강이 범람해 전각채로 유실된 불당에 모셔졌던 불상이 기적적으로 돌아왔다. 3존불 가운데 2구만이 돌아 왔지만, 신자들과 마을 주민들은 기뻐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일본의 '니시니혼 신문' 은 이 놀라운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지난 7월 계속된 호우로 일본 전역에서 홍수와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한편 수해가 집중되었던 일본 남부 쿠마모토(熊本)현의 카마세(鎌瀬)마을에 있던 불당은 근접한 쿠마가와(球磨川)강이 범람하면서 불당 채로 유실돼 버렸다. 아미타삼존이 안치됐던 이 불당과 안치된 불상의 정확한 연대는 확인되지 않지만 마을의 기록에는 약 180여년전 중수했다고 전하고 있다. 불당은 대대로 마을주민들이 신행활동을 이어오는 장소로 지켜져 왔다.

지난 7월 4일, 불당이 유실되는 모습을 지켜본 카마쿠라 마사요시(74)씨는 "호우로 강이 불어난다는 소식을 새벽에 듣고 오전 5시쯤 상황을 보러 급히 나섰다. 그러나 이미 강물이 불당의 지붕기와 언저리까지 닿아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다"며 급박했던 당시를 전했다. 결국 당내의 불상과 불구의 구출을 포기, 당일 오전 8시경 거세진 탁류에 불당이 휩쓸려 갔다. 마사요시 씨는 "단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노인이라 그 어떤 힘을 쓸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마을과 불당의 자리를 정비하던 중 낭보가 날아들었다. 유실된 3존상 중 본존인 아미타여래상과 협시인 관세음보살상이 발견된 것이다. 먼저 본존인 아미타여래상은 마을에서 50km 가량 떨어진 우키(宇城)시의 해안에서 발견됐다.



폭우로 유실되기 전 법당 내 봉안돼 있던 아미타 삼존상(위), 기적적으로 귀환한 불상에 참배하는 주민의 모습(아래).
사진출처=니시니혼 신문

7월 26일 오전, 불상을 발견한 현지 주민은 "해안에 떠내려 온 유목들과 쓰레기들의 상황을 확인하던 중 해안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불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틀 뒤인 28일에는 더욱 멀리 떨어진 해안에서 관세음보살상이 역시 현지 주민에 의해 해안에서 발견됐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시의 문화재과는 시립 박물관 등에 보관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카마세 마을의 불상임을 밝혀냈다. 특히 관세음보살상은 20여년 전 도난사건을 겪은 이래 두 번째 귀환이다. 신기한 것은 광배나 좌대, 손과 지물들의 부속이 탈락되고, 채색들이 모두 벗겨졌음에도 불상의 상호만은 그 어떤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된 것이다.

8월 4일 시립박물관에서 불상을 인계받은 카마세 마을의 카마쿠라 다이키치(84)씨는 "그 급류 속에서 어찌 이리도 무사히"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4일 불당이 있던 자리에서 열린 임시 봉안식에서 다이키치씨는 "두 분 다 해안에 계셨다는 건, 멀리 가지 않고 카마세 마을로 돌아오고 싶으셨던 것 아니겠냐. 두 분이나 찾은 것만 해도 기적이라 생각한다"며 감상을 전했다. 현재 마을은 유실된 대세지보살상의 행방도 탐색하고 있으며, 장래 새롭게 재건한 불당에 되찾은 불상들을 소중히 모시겠다고 전했다.

폭염 속 도보순례…옛 순례길 부흥 발원

日닌나지, 총본산 스님들 주축

사찰 · 신사 등 오사카 시내
150km 거리를 도보로 순례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도



오사카 시내를 순례중인 요시다 스님.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찌는 듯 한 무더위 속, 가사장삼을 수하고 석장을 든 스님이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교토의 스님들과 일본의 대형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동화' 가 함께 기획한 이번 순례에 연일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일본의 '마이도나 뉴스' '야후재팬 뉴스' 등은 오사카를 지나고 있는 순례팀의 모습을 보도했다.

순례를 시작한 것은 교토시에 소재한 '닌나지(仁和寺)' 의 스님들이다. 닌나지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사찰로 진언종 오무로파(御室派)의 총본산. 일본 왕실의 원찰이었던 이곳은 100여 년전까지 일본의 왕족, 혹은 일왕이 양위 후 출가해 주지를 맡는 등 그 위세와 격이 높은 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번 도보순례는 일본의 대형 동영상 사이트인 '니코니코 동화' 가 매년 개최하는 온라인 축제인 '니코니코 인터넷회의' 의 기획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니코니코 동화에서는 '닌나지의 스님, 거의 150km 도보순례 생방송'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순례의 모습들이 생중계 되고 있다. 순례의 목적지는 인접한 효고현의 칸노지(神呪寺)로 도중 코보대사나 닌나지와 인연이 있는 사찰과 신사등을 참배할 예정이다.

닌나지 측은 "이번 도보순례에는 3가지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순례하는 스님이 등에 종조(宗祖), 코보대사의 상을 짊어지고 걸음으로서 '코보대사와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한다' 는 '동행이인(同行二人)' 의 정신을 많은 이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닌나지 경내 뒤에 있는 '오무로 88개소' 의 부흥이다. 시코쿠 88개소를 본 따 200여년전에 만들어진 옛 순례길을 부흥시키고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마지막 목적은 이 길을 정비하기 위한 보시를 받기 위한 권진(勸進)활동"이라고 닌나지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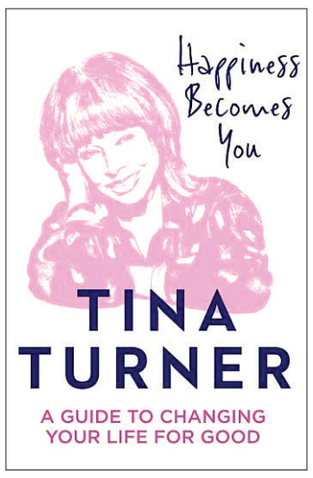
실제 현재 중계되고 있는 영상은 매일 약 5만여명이 시청, 스트리밍 채팅창에는 "무더위 속에 감사하다" "회향까지 힘내시라"는 등의 응원이 쏟아졌다. 심지어 스트리밍을 보고 진행루트에서 기다리다가 차가운 음료나 순례길 부흥에 써달라며 보시금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오전 8시 닌나지 금당 앞에서 출발한 닌나지의 스님들은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석장과 삿갓을 갖춘 전통적인 모습이었다. 순례팀을 이끄는 오이시 데츠겐 스님은 매일 10시간 가량을 이동, 8월 12일 밤에 목적지인 칸노지에 도착했다. 특히 순례 중 카메라맨과 중계되는 채팅에 반응해 대화를 이어가는 스님의 모습이 입소문을 타면서 "닌나지에 한번 가보고 싶다" "스님의 루트를 따라 걸어보고 싶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14일부터는 닌나지 종무총장인 요시다 마사히로 스님에게 코보대사상이 인계됐다. 요시다 스님 역시 매일 10시간 이상 도보로 이동할 예정. 순례팀은 16일 이른 오후에 닌나지에 도착해 오무로 88개소를 일주한 후 금당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아티스트 티나 터너, 불교 저서 발간

'행복은 당신이 된다' 올해 말 발간 예정



티나 터너의 앨범.
사진출처=티나 터너 페이스북 계정

1985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레코드' '최우수 여성 팝 보컬리스트' '최우수 여성 록 보컬리스트' 등 3관왕의 영예를 안았던 미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록 아티스트 티나 터너(Tina Turner · 80)가 자신과 불교와의 관계를 오랜 시간 탐구한 끝에 관련 저서를 발간한다. 자신이 불교를 통해 느끼고 깨달은 바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이다.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 (Buddhist door)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티나 터너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서 '행복은 당신이 된다: 당신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는 가이드' (Happiness be You: A Guide to Changing Your Life for Good) 발간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전 세계에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지며 불교 음악 작업을 하기도 했던 그가 불교 관련 저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티나 터너는 저서와 관련 "이 개인적인 책에서 나는 내 삶의 핵심 주제인 희망, 행복, 그리고 불심에 집중한다"며 "나를 인도한 영감적인 철학보다 불교의 지혜가 실제 내 목숨을 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게 꿈 이상의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준 불교의 지혜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 지혜와 경험을 나누겠다"며 "나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티나 터너는 당초 개신교의 침례교도였다. 그러나 전 남편으로부터 갖은 구타와 협박을 당해 삶의 '피난처' 를 찾던 중 불교를 만났다. 1971년 일본 불교 니치렌종의 분파였던 창가학회 활동으로 불교에 발을 들였고, 2005년 스위스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난 후 2007년 동료가수들과 함께 찬불가와 찬송가를 결합한 무대를 펼치는 등 종교 간 화합의 장을 열기도 했다.

티나 터너는 앞서 2016년 불교매체 라이언스로어와의 인터뷰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나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냈다. 불경 독송은 소리이자 리듬이며, 내 안의 잠재의식에 닿는다. 나는 그 소리가 닿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믿는다"고 한 바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호주 불교단체, 코로나19사태 속 자비

쯔치호주, 의료종사자들 위해 개인보호장비 지속 지원 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호주 멜버른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개인보호장비(PPE) 부족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불교 자선단체 쯔치호주(The Tzu Chi Australia)가 의료계에 PPE를 공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8월 14일(현지 시간) '투데이' (Today) 등 외신 매체에 따르면, 쯔치호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날까지 호주 내 주요 도시 7개 병원과 8개 노인요양시설 등에 4만1000여개 마스크와 1300여개 의료용 가운, 400여개 안면보호막을 공급했다.

해당 매체는 "호주 지역 의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내내 정부 지원이 부족할 때 마다 쯔치호주에 지원을 요청해 PPE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쯔치호주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 지원망 밖에 있는 취약 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도 마련,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들에 대한 구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상태다.

쯔치호주의 자원봉사자 웨인 코커럴 씨는 "많은 의료봉사자들이 우리 단체로부터 PPE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마다 격한 감동을 표출한다"며 "노스턴 병원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 등이 들어있는 20개 박스를 받아들었을 때 울먹였던 표정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